

나주시, 전남도 최초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 스타트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시민의 보편적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민선 8기 역점 공약사항인 '나주애 배움바우처'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시민 2천 500명을 대상으로 연 15만원의 학습비(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

바우처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여성바우처, 문화누리 등 기존 정부바우처 사업 수혜자를 제외, 온라인 추첨을 통해 신청자 2757명 중 2천 500명을 최종 선정했다.

평생학습처(바우처 가맹점)의 경우 연중 모집하며 현재까지 104개 기관, 293개 강좌를 확보했다.

강좌 분야는 취미·교양, 체육, 공예, 음악, 미술, 어학, 컴퓨터, 직업능력, 문해 등이다. 단순 배움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특기에 맞춰 삶의 질을 풍족하게 만드는 다양한 평생학습으로 꾸려졌다.

대상자는 이번달부터 협약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나주시 평생학습정보

방에 등록된 사용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신청·수강할 수 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시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평생학습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도시, 배움이 즐거움이 되고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학습권 보장 정책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평생학습 다양화를 위한 바우처 카드 가맹점을 연중 모집한다. 대상은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바우처 카드로 수강료 결제가 가능한 기관이다.

사용기관 등록은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 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와 업체·업종이 교육서비스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교육기관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단 골프·당구·볼링 등 오락성 분야, 운전면허·보습학원·과외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은 제외된다. /김동철 기자

화순 2024년 본예산 편성 본격 돌입 건전재정 운영·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으로 잡고, 최근 실과소 및 읍면 예산 업무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편성 방향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더욱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지 않은 영(0)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에 준해 편성할 예정이다.

먼저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해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 편성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성장 동력의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내년은 국세 수입 저조 및

특히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새롭게 신설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은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통폐합하는 등 편성 전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부터 개최하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장성 북하면 용두마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장성군 북하면 용두마을이 깨끗한 마을 경관을 갖춰 화제다. 주민들이 직접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대청소에 나서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제5회 영광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주관하며, 취업, 창업, 육아 등으로 지친 청년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과 군수의 소통의 장(청년과 군수의 공감토크 콘서트)도 마련됐다. /영광군 제공

특히 마을의 개성을 한껏 드러낸 벽화가 이목을 끈다. 주민들이 그린 마을벽화에는 늘푸른 용의 자태와 농악놀이 모습이 생동감 있게 담겨 마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북하면 용두마을은 마을 뒷산이 용의 머리를 닮아 예부터 용머리, 용두리로 불렸다. 그 유래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용두마을'이 됐다.

환경개선 활동은 지난 2022년 용두마을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주민 모임을 갖고, 마을 경관을 산뜻하게 가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마을이 깨끗해진 것은 물론, 주민간 우애도 더욱 돈독해졌다.

용두마을 강란규 이장과 박을섭 노인회장은 "사업 시작 이후 마을 어르신 섬기기, 마을 유래 찾기 등을 함께 하면서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해졌다"고 전했다.

장성군 북하면 용두마을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이어진다.

/유광중 기자

제5회 영광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 성료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제5회 영광군 청년의 날을 맞아 최근 기념행사를 영광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청년의 날 행사는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주관하며, 취업, 창업, 육아 등으로 지친 청년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과 군수의 소통의 장(청년과 군

수와의 공감토크 콘서트)도 마련됐다.

부대행사로 ▲청년들이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농식품 홍보 전시 ▲글로벌 워터쇼 ▲EDM 등 공연 이외의 청년들이 운영하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행사를 주관한 영광군연합청년회 주지명 회장은 "우리 지역 청년들이 함께 공감하고 화합하는 청년의

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성공적인 청년의 날 행사가 추진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영광군을 대표하는 청년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군수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경률 기자

농특산물 판매장 '담양장터' 할인행사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30일까지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오프라인 직매장(담양읍 담양읍 면양정로 730)과 온라인 쇼핑몰(<https://www.damyangmk.kr/>)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전 품목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담양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담양장터는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가 모여 주식회사법인 '담양장터'를 설립하고, 담양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에서는 △군수 품질 인증제(조례 제정 및 인증표시 개발) △상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온라인 마케팅 트라이브 쇼핑 관측 △홈쇼핑 판매 등을 지원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내 온라인과 모바일 앱 구매 고객 중 10명을 선정해 햄살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담양장터'에서는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한 700여 개의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을 받은 대숲맑은 담양 쌀과 전통한과, 주류, 장류 등 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장터에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품격 높은 담양 농특산물을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진성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작상 수상작